

**출퇴근 시간 단축·신차 내 차처럼  
일석이조 즐거움**

지난해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2019년 8월부터 2년간 청춘드림카 지원을 받고 있다. 매월 자동차 임차비용 66만1천 원 중 48만 원을 부산시가 지원한다. 한 달에 개인 부담금은 18만1천 원. 남구 대연동에서 강서구 직장까지 통근버스를 이용할 때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청춘드림카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졌다.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주말에는 가족과 드라이브 등 일상이 풍족해진 느낌이다. 무엇보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신차를 2년간 내 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출퇴근이 편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서유덕 테크로스 전문기술팀 /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안정적인 인턴경험과 정규직 기회... 자기 계발은 ‘덤’**

세창상사 청년인턴으로 지난해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파란일자리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근무했다. 일반적으로 청년인턴은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불안한 데 반해 정규직 전환조건이라는 조항이 있어 조금은 안정적으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원 청년에게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의 교육 혜택도 주어져 많은 도움이 됐다. 비즈니스 매너 등과 같은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인턴 기간 중 파란일자리사업에서 자격응시료도 지원받아 일본어능력시험(JLPT) 최고등급인 N1을 취득했다. 자기 계발은 물론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 이후 목표설정에도 도움이 됐다. 마냥 취업이 어렵다고 푸념하기보다는 취업준비 기간이라도 청년인턴과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 파란일자리사업에 적극 지원해 보기를 추천한다. 파란일자리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부산청년들이 인턴경험은 물론 정규직 기회를 갖게 되기를.

- 이지원 세창상사 해외영업부 / 파란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이여, 부산에서 마음껏 꿈 펼쳐라!”**



**파란일자리사업·부산청춘드림카 등... 일자리부터 자동차까지 패키지 지원**

부산광역시의 올해 청년정책 최고 화두는 ‘부산청년 파이팅’이다. 취업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산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창업에 전념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비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을 돕는다. 부산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생활 안정, 주거, 복지, 시정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디딤돌카드+ 지원을 최대한 앞당겨 부산청년 파이팅 3종 세트 모두 4월부터

지급한다. 청년 파이팅 3종 세트 사업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1천 명, 연100만 원) △디딤돌카드+(2천100명, 연300만 원) △청년 월세(3천 명, 연1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총 6천100명에게 101억 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 위축 등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청년-약국 근무 지원(250명) 대책도 추진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 삶 전반에 기운을 북돋우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취업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이패스 천사**

지난해 봄, 당시 취업준비생이던 나는 몸도 마음도 조급해져 있었고 재정적 도움도 필요했다. 인터넷과 취업센터 등을 통해 청년 관련 정부지원정책을 정말 많이 찾아보던 차에 마침 부산시가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디딤돌카드’ 사업 공고를 접하고 신청, 감사하게도 5월부터 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 구입비, 학원 수강료와 인강 수강료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면접 준비에 필요한 사진 촬영이나 정장 구입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디딤돌카드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되고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학원비, 교재 구입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어 더없이 좋았다.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덕분에 10월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청년디딤돌카드는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하이패스 카드였다.

- 장미진 더재무컨설팅 / 청년디딤돌카드 지원사업

**옹기종기·청년 주민반상회 커뮤니티 지원  
일상 청년 삶 의미 찾아**

부산청년모임 ‘옹기종기’와 ‘청년 주민반상회’ 등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옹기종기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기회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청년 커뮤니티 60팀을 선정, 팀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일자리, 취업 등에서 조금은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도전으로 사회적 감각을 키워나가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60팀의 활동비를 지원했고 총 362명이 참여했다. 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추진과 팀별 역량강화를 위한 오픈 멘토링으로 많은 사랑도 받았다.

‘청년 주민반상회’는 청년이 직접 제안해 선정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이다. 지역주민과 청년 간 마을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한다. 구·군별 16팀을 선정, 100만 원을 지원한다. 4월 중 옹기종기와 청년 주민반상회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총 76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문의 : 051-580-9036). 앞으로도 부산청년들이 일상에서 또 다른 의미와 재미를 ‘청년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

- 이승휘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 / 부산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 담당